

아내를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라!

제 2의 신혼여행

97년 4월, 스위스 라브리에서 국제회의가 있어 스위스를 방문할 적이 있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는 아내에게 연락해서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산자락에서 각 나라에서 온 라브리 대표들과 2박 3일을 보냈는데,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아내와 함께 프랑스 안시라는 도시에서 2박 3일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제 2의 신혼여행이라고나 할까.

안시(Anncy)는 내가 가 본 유럽의 도시 중에서 독일의 바덴바덴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 안시 호수가 펼쳐지고 저 멀리 프랑스 알프스의 설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어지는 산책과 휴식과 대화. 더욱이 우리가 묵었던 임페리얼 호텔의 아름다운 정원과 여섯 그루의 거대한 미루나무, 튜립 화단, 중세 네덜란드의 옛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고풍스런 옛 거리 등 모든 볼거리들이 감동을 자아냈다.

특히 아내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전보다 더욱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달 만에 만난 탓일까. 왠지 아내가 좋았다. 무슨 이유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내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변한 것이다.

전인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은 내 자신이었다. 내가 변한 만큼 다른 관계도 변화될 수 있었다. 만남을 통해 내가 치유 받고 회복된 만큼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내가 아내의 유학에 동의한 것은 불과 2~3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나는 내가 비교적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는 열심히 나를 돕는 것만이 아내의 사명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로서 필요한 역할만을 열심히 요구하는 것이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는 나에게서 멀어져갔다.

그런데 어느 날 치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께서 아내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다.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도 그날 나는 대인 관계의 치유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 같다. '왜 내가 너에게 배필을 허락했는지 아느냐?' '네 아내에 대한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야?' 그 질문은 아내에 대해 고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다.

'나는 내 아내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아내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으니 내 아내가 행복했을 리 없다. 나하고 가까운 관계인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의 모든 사역의 성취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따뜻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선한 영향력이다. 그 열매는 상대의 행복이요 성숙이다. 즉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희생을 강조한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구 충족만을 열망한다. 그 최종적 열매는 치유인가? 파괴인가? 행복인가? 아니면 자기 연민의 쓰라림인가?

그리하여 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내의 유학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세 아이들도 유학을 떠나 혼자 서울에 살게 되었지만, 가끔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도 밝고 행복해서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고 살았다. 아내와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나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남에게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된 다음부터였다. 대학 시절 막연히 믿음 안에서 지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보였고,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시각을 절대화하다보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닌 '내가 추구하는 나(내가 되고자 하는 완벽한 자아상)'를 나의 실체로 잘못 파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다. 즉 초인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인격적으로 크게 왜곡된 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 밖에서 찾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결혼하면서부터 대학 교수를 하던 시절이나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 군대 시절, 더욱이 사랑의 클리닉과 사랑의 봉사단, 전인 치유 학교를 운영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네 탓, 상대방 탓, 조직 탓으로 돌리지 않았나 싶다. 이처럼 자기가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리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아가 강한 독불장군이나 자기 확신이 강한 불도저형 성격일수록 심하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수록, 카리스마형 지도자일수록 심할 수밖에 없다. 그 치유는 공동체적 삶을 살면서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 부딪쳐서 깨지면 깨질수록 점점 겸손을 배워가고 병든 자아를 인정하게 되어 인격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 부딪치는 과정과 깨어지는 메카니즘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회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은혜에서 벗어나면 더 큰 상처와 왜곡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치열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다. 최근에 와서야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고 있다.

요즈음은 정말 직원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 변화의 폭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물론 나는 완성된 자아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자 미완성 교향곡이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숙명적으로 섬김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이다.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라!

사랑의 음악회

나는 공연이 시작될 무렵부터 무려 3 시간 동안 가슴 조이는 시간을 보냈다. 문화적 옷을 입은 복음이라는 실험이 인도의 중심 도시 뭄바이에서 자존심 높기로 이름난, 그것도 힌두이자 브라만인 상류 계층을 대상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초조함 때문이었다.

뭄바이의 국립 극장인 타타 씨어터에서 조이 5 중창단의 음악회가 있었던 것은 지난 6 월이었다. '하나님만이'로 시작된 영어 찬양곡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영어 가곡과 한국 민요를 부를 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Made in India'라는 인도 노래를 부를 때에는 열광적인 반응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 영어 찬양에도 좋은 반응이 계속되었으며 2 부에서 있었던 힌디어로 부르는 복음성가(확실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됨)에도 그 반응은 이어졌다.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영어 찬양으로 음악회가 끝났을 때는 앙코르의 함성이 그 극장을 가득 매웠다.

그리고 수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해마다 다시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기도 했다. 나는 음악을 통해 이토록 성령께서 역사 하실 수 있음에 놀라며 문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 응답의 위대한 열매를 목도할 수 있었다.

내가 조이 5 중창단을 알게 된 것은 제 5 기 사랑의 봉사단에 같이 갔던 서영이 때문이었다. 인도의 중부 지역 하이드라바드라는 지역에 의료 지원차 합류했던 나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서영이가 자신의 꿈이 선교사라는 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서영이는 화가이자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성악가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깊은 영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물려받은 아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영이의 어머니가 조이 5 중창단의 멤버였고 그 인연으로 나는 사랑의 클리닉 창립 2 주년 리셉션에서 처음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사랑의 봉사단 멤버들로 구성된 현악 4 중주인 사랑의 앙상블의 데뷔 공연도 좋았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조이 5 중창단이 불렀던 2 곡의 찬양이 터뜨린 은혜와 감동의 불꽃은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찬양 한 곡이 이토록 온전히 모든 참석자를 전율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그토록 무지했었던 것이다. 조이 5 중창단과의 인연은 햇볼 회관에서의 사랑의 음악회와 인도, 아프리카, 유럽 순회 집회로 이어졌고 나는 그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박영 화백의 '사랑의 미술전'과 더불어 '사랑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햇볼 회관에서 있었던 사랑의 음악회를 마치고 쓴 글이다.

1.

저는 조이 5 중창단을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감탄을 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뛰어난 예술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저는 그분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 앞에서의 일관된 헌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술성과 영성,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이로운 능력과 깊은 영향력의 살아 있는 모델들입니다.

조이 5 중창단은 선명회 합창단 때에 만나 고등학교 때 주님께 헌신한 이래 23 년 동안 한 지체를 이루어 평생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음색을 유지하며 익을 대로 익은

인격과 결합되어 나오는 감탄을 자아내는 찬양, 이렇듯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한 팀으로 활동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조이 5 중창단의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샘! 그 가운데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깊이 체험하곤 합니다. 익어 가는 가을철, 고개 숙인 영성의 거인들의 빛 된 행로에 같이 산책하지 않으시렵니까.

2.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10 월 26 일 사랑의 축제. 햇불 선교 센터 1?층 3,000 석을 거의 메웠던 사랑의 음악회. 그것은 천상의 음악이 오색 빛 영롱한 달무리로, 푸르름이 아로새겨진 다섯 겹 사랑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은 경이로운 음향이었다.

나는 그들이 찬양을 할 때 나의 떨리는 가슴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첫사랑의 연인처럼 차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주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동안 기도를 쏟으며 사랑과 정성의 씨앗을 뿌렸던 출연자들의 수고가 곱디고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랑의 앙상블, 글로리아 코랄, 듀엣 제이제이, 손영진 사모님, 윤형주 장로님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데 크게 쓰임을 받은 찬란한 영광의 밤이었다. 주님이 100% 다 하셨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 잠잠히 그날의 은혜를 돌아다보면 여전히 감동이 되살아난다.

조이 5 중창단과 순회 집회를 하던 도중 케냐에서 선교사 초청 세미나와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때 음악회가 끝나고 한 선교사님이 독백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음부터 음악 선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꼈다. '음악으로 선교한다면 누군들 못하랴.' 그러나 조이 5 중창단의 찬양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 그들의 공연은 음악을 통한 살아 있는 메시지였다.

아프리카와 프랑스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듣는 청중들을 보면서 인류 공통의 언어인 음악이 아니면 이를 수 없는 복음 전파의 독특한 기능과 문화 선교의 파급 효과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순회 집회가 끝나고 귀국한 다음 은성 교회 4 부 예배에서 청년.대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도전을 던졌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마지막 집회 때의 일입니다. 파리 한인교회 연합으로 전인 치유 세미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조이 5 중창단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이 5 중창단은 이제 주님께 간다고 해도 후회함이 없겠다.' 전 인격과 온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찬양, 그 표정에 드리워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구로 100%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신 것을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달란트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자신의 전 인격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월드 리더 클럽과 교육 혁명

나는 가끔 자녀 교육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강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겸비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못된 점들을 보면 나를 닮은 것 같아 안타깝고 아름답고 기특한 점들을 보면 주님이 키우신 것 같아 감사할 뿐이다. 자녀를 위해 처절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특별한 애정을 베풀어 준 적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고수했는데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을 가끔 '타인으로 여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이 되라고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요구한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지성, 건강한 정서(풍요로운 인간성), 건강한 몸, 건강한 대인 관계를 목표로 자라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덧붙인다면 나는 아이들이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라지만, 가능하면 모든 영역들을 통합해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포괄적 전문가로 자라기를 바란다. 즉 다른 분야에도 깊은 이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창조적 괴짜가 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는 분야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영역들을 골고루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성격에 있어서도 이제는 내적 성찰이 깊으면서도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 냉철한 지성과 풍요로운 감성을 겸비한 사람, 고도의 융통성을 가진 원칙주의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그 지혜(정신적 측면, 즉 지성과 감정)와 그 키(신체적 측면)가 자라가매 하나님(영적 측면)과 사람(사회적, 관계적 측면)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묘사했듯이 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하기를 열망한다.

이제는 IQ(지능 지수)와 EQ(감정 지수)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SQ(Spiritual Quertient, 영적 상태), PQ(Phsical Quertient, 신체 지수), RQ(Relational Quertient, 관계 지수) 등이 동시에 귀히 여겨지는 성경적인 교육이 빛을 발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SQ)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다른 영역은 정진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내가 사랑의 봉사단 운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월드 비전의 확산이지만 그 부산물로 나는 단원들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나는 그것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섬김과 사랑의 결단이 가져온 자기 변화이다. 사실 그 짧은 기간에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는가.

그런데 경이로운 사실은 한번만이라도 사랑의 봉사단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봉사단 운동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보다 부모님들에게 더 인기 있는 사역이 되었다.

고통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식생활 습관이 바뀌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태도도 바뀐다는 것이다.

목표가 생기면 공부는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변화된 이유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돕겠다'라는 소박한 동기에서부터 '그들과 비교하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겠다'는 상대적 행복감, '영어를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국제화 시대의 열등감, '정말 나는 선교사가 되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선교적 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목표가 생기고 꿈이 잉태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추석 때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집회에서의 일이다. 집회 때마다 참석한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아이들은 대개가 상사 주재원인 자기 부모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을 먼저 전도한 목사님의 전략도 경탄할 만한 일이지만 기도의 사람들인 이 학생들이 결국은 부모님들을 교회로 이끌어낸 것이다. 그것은 바른 영성의 모델이었다. 그 영적 영향력에 나는 옷깃을 세우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21 세기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자원을 발견했다. 그들은 어렸지만 마치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영적 당당함과 기개가 있었다.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월드 리더로, 즉 차세대의 요셉과 다니엘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온통 부도로 꽂찬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도난 정치, 부도난 경제뿐 아니라 부도난 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서 거품 신앙, 거품 인격이 아닌 '참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깊은 열망을 주셨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 혁명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한국 교회가 조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혁명의 산실이요, 월드 리더 클럽의 모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손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필리핀 순회 진료 도중 일로일로에서

마닐라를 출발한 비행기가 필리핀의 파나이 섬을 지날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경치 중에 내가 가장 매료되었던 것은 5년 전 스위스 항공을 타고 쥐리히에서 뭄바이로 오는 도중 오스트리안 알프스의 비경에 취했을 때였다. 가을날 알프스의 하얀 영봉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찬란히 빛나고 그 밑으로 초록의 빛깔이 들러리를 서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파나이 섬의 비경은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비행기가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초록빛 섬으로 진입하니 수십 개의 나지막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현란하게 우리를 맞았다. 그것은 꼭 열병식을 위해 서 있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동작을 하고 있는 군인들 같았다. 야자나무의 행렬이 산의 높낮이에 따라 리듬을 맞추어 전개되며 전형적인 밀림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일로일로라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강원도만한 크기의 파나이 섬. 거기에는 자연의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감동을 자아내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꿈나무 봉사대가 출진했던 8개 지역 중 일로일로 팀을 선택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곳은 5기 봉사단의 사역 보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이었기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일로일로 팀보다 사흘 늦게 시작된 행군은 세부 섬으로 이동할 때까지 엿새 동안 진행되었다.

일로일로 시 외곽 생 미구엘에 있는 '본부교회'에서 첫날 여장을 풀고 근처 한 개척 교회에서 이미 시작된 치과 사역지를 잠깐 돌아보았다. 그 교회에서 팀들과 반가운 해후의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한

후 본부교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한 마디로 '진수성찬'이었다. 각종 과일과 해산물들을 포함한 식사로 사랑의 봉사단을 다니며 먹어본 식사 중 최고의 만찬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만찬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알고 보니 거기에는 사원이 있었다. 작년에 사랑의 봉사팀들이 와서 봉사를 했을 때, 그곳 개척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아무런 식사 준비를 못하자 같이 굶은 적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엔 선교사님이 각 교회들에게 식사비를 미리 나눠주고 식사를 준비하도록 조처한 결과로, 가는 곳마다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잘 먹으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처럼 좋을 줄이야.

둘째 날 안티끼 시발름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도중 '야자 숲 교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시발름 읍내에 있는 '마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안티끼 신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사역 준비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비가 새는 전통 가옥 한 채를 신학교 강의실 겸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벽돌집 한 채(교장 사택 겸 사무실)와 기숙사로 쓰는 전통 가옥 한 채가 신학교의 전부였다. 교장 선생님의 서민적 체취가 인상적이었으며 신학생들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었다.

신학생들이 벽돌집 공사를 위해 굶으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돈이 없어 중단되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즉석에서 헌금을 했다. 얼마 안 되는 200 달러 정도로 벽돌집 완공은 물론 강의실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은 헌금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안티끼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비밀한 산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날 오후에는 신학교에서 의과 및 치과 진료를 했고 저녁에는 시발름 마을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 꿈나무들의 찬양과 율동, 그리고 갑자기 부탁을 받은 내가 서툰 영어로 간증 설교를 한 후에, 인형극 공연이 있었다. 천여 명쯤 될까.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고 반응도 매우 좋은 것 같았다. 설교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닥터! 닥터!'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성당에 다니는 수는 전 국민의 7%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제 형식만 남아 종교화된 가톨릭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순박한 이들은 살아 있는 말씀에 굶주려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우방 중의 우방. 그 당시에 800 불이었던 국민소득이 46년이 지난 지금 1,000 불이라고 하니 마르크스 독재 정권이 남긴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 개신교인인 라모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필리핀 비전 2,000'이라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이들. 영적 부흥과 경제 부흥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적 모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날은 아티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사는 안티끼의 바닷가 마을을 방문했다. 이들은 본래 필리핀의 원주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소수 부족으로 전략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서태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원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스스로 자원하여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10 인용 미니버스에 30 명의 단원과 의료 장비, 약품, 기타 사역을 위한 짐까지 가득 싣고 이들을 찾아가는 길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우리 단원들은 버스 지붕 위에 타는 것을 좋아해서 본의 아니게 2층

버스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다녔다. 나중에는 서로가 지붕 위에 타기를 위해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험한 산길일수록 더 신바람 나는 아이들.

해안선을 따라 아티족을 찾아가는 길은 전형적인 아열대 풍경이었다. 야자 나무숲과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전통 가옥과 가끔 손을 흔드는 농부들과 학교에 가는 아이들….

어릴 적 꿈에서나 아스라이 그리던 바닷가의 가난한 마을이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 모든 짐을 모래벌을 통과해서 옮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까무잡잡한 가난한 족속들. 이들은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 사람들의 눈을 경작하는 소작인으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필리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윽고 푸르름이 찬란한 해변가에서 의료 진료와 인형극,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티족 교회'를 세워주자는 형제자매들의 고사리 같은 뜻을 모아 벽돌 200 장과 시멘트로 예배당 건축에 들어갔다. 우리 꿈나무들에 의해 미전도 족속인 아티족에 최초로 예배당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오 주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공사 중인 예배당 터에서 축복송을 부르며 하루 봉사로는 너무 짧은 일정이지만 아티족과 아쉬운 이별을 했다. 다시 '내륙교회'로 이동하여 그곳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예기치 않던 야밤 진료를 강행했다.

진료 중에 잠깐 나온 교회 앞 숲 속,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한 꼬마등처럼 반딧불이 온통 거대한 버드나무 숲을 밝게 장식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었다. 오직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을 뿐.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봉사를 해 준 어린 단원들의 기백에 감탄을 했다. 다음날 새벽 버스는 본부교회인 생 미구엘로 향했다.

넷째 날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파나이 섬 앞에 있는 귀마라스 섬으로 피크닉을 갔다. 제주도의 절반만 한 섬인데 망고 나무의 멋진 배열이 인상에 남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피크닉이 아니고 섬에 있는 두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섬 꼭대기에 있는 '오지 교회'는 전통 가옥으로 열댓 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 초미니 교회였다.

어디서나 개척 교회는 감동을 준다. 감동은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끔 만든다. 이어 우리는 해변가 방갈로로 갔는데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다. 아직 미개발지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든다. 산호섬의 신비는 바다 색깔에 있다. 연청색과 녹색의 딱 중간에 서있는 색, 그리고 하얀 모래사장, 푸르른 하늘빛의 조화, 그리고 작열하는 태양….

'나만이 아는 곳'이 있다는 기쁨에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섬기는 삶의 기쁨과 아울러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 노동의 땀 다음에 오는 안식은 그 빛이 황금빛일 수밖에 없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편 23 편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날은 선교사님이 공산 게릴라의 출현에 의해 순교 당할 뻔했다는 '산간마을교회'로 진료 및 농업, 어린이 사역, 인형극 사역을 떠났다. 그곳은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었다. 뜨거운 햇볕에 지친 송결로 진료를 시작한 지 이십 분쯤 되었을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 순식간에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미처 못 한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전통 가옥인 예배당에 비가 샌다는 것이었다. 새는 비를 맞으며 진료는 계속되었고 벼를 베기 위해 나간 형제자매들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었다. 밤늦게 저녁 집회와 인형극이 끝나고 호롱불을 길잡이 삼아 그 산골을 내려왔다. 조그만 개울은 억수 같은 비로 순식간에 강이 되어 버려 미리 버스를 내려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산을 어렵게 내려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돕고 섬기는 하나됨의 환희를 체험했다.

여섯째 날은 우리 순회 진료팀이 일로일로를 떠나 세부 섬으로 가야 했기에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러나 일로일로 팀의 사역은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원더풀 스케줄'이었다.

닷새 동안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련하신 분은 서태원 선교사님이다. 가는 곳마다 순박하고 겸손하고 열정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치밀한 준비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에 감탄하곤 했다.

서태원 선교사님. 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그토록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선교사를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모두가 '목회자 훈련원' 출신으로 그의 제자들이면서 한결같이 그가 '매우 겸손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교사의 권위와 물질에 의한 흡입력이 아니라 품성과 사랑과 섬김에 의한 공동체적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힘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벌써 수십 명의 목회자가 그곳을 거쳐가 지금은 파나이 섬의 400 만 주민을 복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들어갔다고 한다. 일단 2,000 년까지 200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체 선교사를 훈련하는 단계에까지 목표를 세워 기도하고 있다.

복음의 황금 어장인 필리핀! 앞으로 10 년 내에 크리스천의 수가 15%에 도달하면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인 힘으로 필리핀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기뻐하는 선교사님. 앞으로 10 년이 필리핀으로서는 복음화와 경제 부흥의 절대 절명의 찬스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기라고 힘주어 강조하신다.

'현지의 복음화는 현지인의 손으로'라는 명제를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뵈면서 나는 주님을 닮은 인격의 위대한 능력과 겸손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군림하는 선교'가 아닌 '세워주는 선교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연으로 남아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일관된 선교. 목회자 훈련원 출신의 목사님의 사례비는 우리 돈으로 결혼하신 분이 30,000 원, 미혼자는 15,000 원이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목표액도 미달되어 결혼하신 목사님도 18,000 원 정도로 생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깊은 충격을 느꼈다. 타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밤낮 없이 뛰는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심판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선교사 훈련을 하기에 일로일로처럼 적합한 곳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실 선교 훈련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모델이다. 그래서 이곳에 6 개월 코스로 한국인 선교사를 훈련할 훈련원(국제 선교 사관학교)을 세우기로 선교사님과 합의를 보았다.

우선 이곳은 영어권이라 언어를 배우기에 적합하다. 일로일로는 7 개의 종합대학과 수많은 학교가 있는 교육 도시이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원 출신의 목사님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그물처럼 퍼져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오후에는 캠퍼스에서 배운 영어로 전도를 하고 밤에는 개척 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하고, 전도한 학생들을 교회로 연결시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주말에는 아름다운 귀마라스 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교의 산 모델이신 선교사님의 인격과 신앙을 본받고...

선교사 양성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환경이 있을까. 한국 선교사를 훈련하기에 금상첨화의 조건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겸손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아십니까?"

내 아들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아아! 에티오피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믿음에 부요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알게 되었다.

'70 년 대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에티오피아! 국민소득 120 불의 세계 최빈국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결코 일어서리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리라. 그래서 21 세기에는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위대한 아프리카의 시대'가 오리라는 손바닥만한 꿈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보았다.

'왜 이리 추워? 여기 아프리카 맞아?' 아프리카 팀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화의 내용이었다. 에티오피아는 6 월 중순부터 9 월 중순까지 우기에 들어간다. 본래 고원 지대라 약간 선선한 편인데다 시도 때도 없이 비까지 내려 밤에는 옷을 꺼입고 자야 할 정도로 으슬으슬 추웠다.

솔로몬 왕의 후예(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 고대 에티오피아의 기틀을 잡은 메넬릭 1 세)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 한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아프리카의 유일한 독립국(19 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침략에 대하여 투쟁 끝에 승리함. 한니발의 유럽 정벌 이래 유일하게 유럽을 이긴 아프리카의 위대한 승리국 이라는 긍지가 대단함)이라는 자부심, 외국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친절함 민족성, 외국의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자존심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의 명세서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엄청난 영적 자생력이다. 1890 년 대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당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사들(주로 SIM)이 모두 철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 세례를 받았던 현지인 크리스천의 수는 40 명. 이들을 남겨두고 철수했던 선교사들이 몇 년 후전쟁이 끝나고 다시 에티오피아의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했다 한다. '과연 크리스천이 남아 있을까?' 하며 그들을 찾았을 때 크리스천의 수는 10,000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선교사의 지도 없이 자체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다.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는 정교회와 35%에 달하는 이슬람의 핍박, 그리고 공산주의 통치 기간인 197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일어났던 엄청난 박해와 수많은 순교가 폭발적 성장의 뇌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박해와 이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일까. 1920년에는 20만 명에 불과했던 크리스천의 수가 올해에는 900만명(비공식 통계)에 달할 것이라고 그곳 최대 교단인 칼레 헤어웨트의 전도국장 고슈 목사가 귀뜸을 해 준다.

빌립 집사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된 구스 내시의 덕분으로 4세기 경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에티오피아. 이후 1,600년 동안 국가가 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제 생명 없는 껍데기 종교로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다.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은 기독교'와 '모슬렘'과 '공산주의'의 틴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에티오피아 성도들은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한 신앙과 풀무불에 연단된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욥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 봉사를 했던 아디스아바바교회에서는 평일에도 삼사백 명의 성도가 나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 이토록 금식이 행해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으며 이토록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도 본 적이 없다. 정교회의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오직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아갈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 덕분에 말씀 사역과 의료 봉사도 순조로웠고 팀원 중의 한 분으로 기도원을 하시는 선순훈 전도사님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다. 맹인이 눈을 뜨고 간질이 낫고 만성고질병인 천식이 치유 받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었으며 그때마다 '일릴리리리리' 하며 꼭 천국 방언과도 같은 그들 특유의 환호성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우리와 같이 사역을 했던 박종국 선교사님은 SIM(Society of International ministries) 소속 선교사이다. 19세기 후반 본래 수단의 내지 선교회로 출발했던 SIM은 현재 20개 나라에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센터 중심의 총체적 지원 사역(기초), 교회 개척 사역(왼쪽 기둥), 목회자 양성 사역(오른쪽 기둥), 사회 복지 개발 사역(지붕)의 4대 핵심 사역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사역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현지인 교회를 철저히 섬기며 돕고 협력하되 자립 단계가 되면 100%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동역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참여한다는 원칙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SIM과 같이 동역 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비굴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SIM 센터 옆에 있는 교회는 역시 칼레 헤어웨트 교단 소속으로 마태오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는 이 교회가 개척한 지교회에 가서 드렸다. 우리 일행뿐 아니라 본교회 3부 성가대(이들은 매주 교대로 지교회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음)가 동행하여 시골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예배를 드렸다. 조그만 공간에 콕콕 들어찬 성도들과 손님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살아 계심을 마음껏 찬양했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우리는 일찍 자리를 떠야 했다.

이들의 예배는 보통 3~4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몰입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움 속에 1 시간의 예배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방문한 SIM 고아원은 우리의 두 번째 사역지인 원지(Womji)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가장 모델적인 자립 사역을 하고 있었다. 고아원과 농장, 게스트 하우스와 교회, 목장과 인공호수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농장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서니 마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 같았고 '이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공동 신앙체는 주변의 거친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자연 환경까지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푸르름의 향연이 펼쳐진 사탕수수밭! 이윽고 우리는 원지에 도착하여 태국의 촌부리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사탕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의 한 시골 교회를 찾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보고 "뽀뽀(Foreigner)" 하며 따랐고, 특히 아이들은 '유(You)' '유(You)'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차를 타고 가면 지나가던 그들은 우리가 너무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동안 쳐다본다. 저녁 전도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맨바닥의 창고 같은 건물에 사람들이 콕콕 들어차고 잠깐 동안의 찬양 사역과 선교사님의 메시지에 모두들 은혜로 충만했다.

집회 후 진료까지 마친 우리는 공설 운동장 내에 있는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공산주의의 망령일까. 배고픈 나라의 시골 읍내에 이토록 거창한 운동 경기장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다.

주변의 아름다움과 감격에 놀라워하고 있는 내게 떨어진 선교사님의 특명은 읍내 교회의 오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영어로 말이다. 새벽장을 설친 탓에 일찍 일어나 간증 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후 나는 세 번이나 영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물론 현지인 목사님이 영어를 아말릭이나 오르모로 다시 통역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 삼중통역은 면했으니 선교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주님께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번 사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순회 의료 사역의 필요성과 더불어 총체적 사역의 일환으로 순회 말씀 사역, 순회 찬양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눈뜨게 하신 것 같다.

사실상 재정 문제로 읍내 교회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 이 지역은 모슬렘이 강한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온 이후 강한 핍박 속에서도 300 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자랐고 5 년이 채 안되어 시골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상 자체 교회는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사탕수수밭 노무자로 일하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 현금을 해, 땅을 구입하고 포뎃자루로 천막을 쳐서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미처 지불하지 못한 땅값 40 만원 때문에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 땅값만 해결해 주면 교회 건물은 자기들이 스스로 짓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을 돕기로 하고 우리는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왔다.

다음날부터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알리벨라 지역(승용차로 이들이 걸리는 곳)의 지하 교회를 방문해 그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항까지 갔다가 경비행기 사정으로 취소하고 그날로 바로 윌리쇼 지역을 방문했다. 윌리쇼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이번 에티오피아 사역의 꽃이었고 일정을 바꾸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할 뿐이었다.

그 교회는 논바닥 가운데 있는 교회로 진입로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는 약품을 들고 진흙 밭 속 돌 징검다리를 건너가야만 했다. 거기서도 간단한 집회와 찬양 사역과 진료 사역이 있었고 부설 성경 학교를 방문했다. 놀라운 것은 3년제 성경 학교인 이곳에서 매년 십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교회가 없는 윌리쇼 시골 지역(면 단위)에 파송되는데, 벌써 교회를 개척한 곳이 20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달에 약 1~2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으며 이 학교 교수들 역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학교라고 해야 책상도 없는 맨땅에서 동서남북 바람벽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그리고 희미한 흑색 바탕의 벽 칠판 한 개가 동그마니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윌리쇼의 지도를 걸어놓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20여 개 지역을 표시해 가며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 살아 있는 교회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재정난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다.

점심때가 되어 윌리쇼 교회에서 개척한 지교회 한 곳을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최근에 땅을 사서 건축 중이었다.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몇 년 동안 모은 헌금으로 언덕 꼭대기에 땅을 샀는데 정교회에서 그 땅을 반강제로 빼앗아 본래 위치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와 교회를 짓고 있다고 했다.

우리 팀원들은 모처럼 기회를 잡은 '몸으로 때우는 사역'에 환호성을 질렀다. 나무 골조로 엮은 뼈대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이겨 발라 붙이는 작업이었는데 모두들 즐거워했다. 하루 벌어들인 것은 사는데 성도들임에도 끼니를 거르며 교회를 짓는 열심에 가슴 저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가져간 빵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 사역에서 가장 큰 수확은 에티오피아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 '사랑의 하모니(Lovely Harmony)'를 결성한 것이다. 사랑의 봉사단 전임 간사로 영입된 모가스 형제를 주축으로 11명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이 팀은 지속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물론 아프리카 전역에 찬양 사역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아프리카인에게 찬양은 최상의 영적 공격 무기이다. 앞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 선교의 새 장을 여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할 뿐이다.

에티오피아는 어디를 가나 미남미녀가 즐비하다. 거지도 미인이라는 인도에 비길만한 아프리카 최대의 미인국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며 처음부터 물량주의 선교가 배제된 자립 선교의 모델 국가이다.

웃기를 잘하고 순수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영혼들, 물질적 궁핍 속에 담겨진 부요한 믿음과 가난을 움켜쥐고도 동족의 복음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 가는 아름다운 자산들을 그대로 보존하며 부흥하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제 2의 한국 교회가 되어 함께 세계를 밝힐 날을 기대해 본다.

내 아들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카트만두 골짜기의 기도 향성

국민소득 150 불, 평균 수명 46 세의 아시아의 최빈국. 세계 10 대 고봉중 8 개가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산족으로 구성된 산악 국가. 힌두교가 국교인 유일한 나라. 경비행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나라(이것은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님).... 이것이 필자가 알고 있던 네팔의 명세서이다.

75%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산모 중 40%가 영양실조로 조산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안 것은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다. 구정 연휴 기간에 급조된 5 명의 봉사단을 이끌고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한 것은 구정 전날인 18 일이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호산나 재단 팀과 합류하여 첫 번째 봉사 예정지인 극서 지방의 도티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떠난 지 44 시간 만이었다. 처음 타보는 경비행기의 묘기는 둘째 치고, 그 동안의 우여곡절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비행기만 해도 3 번을 바꿔 탄 데다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식량과 의약품 등 그 많은 짐을 내려 다시 짐차에 옮겨 싣고 도티로 향했으니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다 저녁 7 시에 출발한 2 대의 소형 짐차에 12 명의 멤버와 짐이 뒤엉킨 채 난방이 안된 차내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며 히말라야의 지맥인 듯한 산들을 넘고 넘었다.

히말라야에서는 한기로 인해 두 손을 호호 불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다. 밤새 무수한 낭떠러지 길이 연결된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티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오전 9 시 30 분이었다. 카트만두 공항에서 비행기가 4 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항공 연결이 안 되어 경비행기로는 30 분 걸리는 거리를 차로 14 시간 반을 걸러 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경비행기의 위험과 낭떠러지의 위험, 게다가 추위와 피곤과 자지 못함이 겹쳐 몸은 엉망인데 마음 한 쪽에서는 '살 맛 나는 기쁨'이 샘솟아 올랐다. 아침 9 시부터 진료를 한다는 사실이 그곳 라디오 방송에 의해 이미 홍보되어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휴식은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러나 어찌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필자의 특이한 체질 탓인가. 주님은 나의 체질을 이러한 역경에 처할 때마다 삶의 환희를 느끼도록 묘하게 디자인 해 놓으셨다.

이곳 도티 선교 센터는 병원과 영재 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면에는 험벗은 황토빛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나지막한 산 위에 이층집 정도밖에 안 되는 도청이나 경찰국, 전화국 등이 몰려 있었다. 비교적 숲이 많고 뾰뾰하게 들어찬 나무가 있는 산중턱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도청 소재지인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인 셈이다. 말이 도시지 우리 나라의 면 소재지만도 못한,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다.

꿈같은 2 박 3 일이 갔다. 몰려드는 환자들, 미남미녀만 모아놓은 듯한 영재 학교의 예의 바른 아이들, 인도와 네팔 전역에서 차출된 크리스천 교사들, 착하디착한 마을 사람들.... 식사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사랑이 듬뿍 담긴 풍성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그곳 교사들 및 선교사들과 가진 영소 바비큐 파티와

캠프파이어는 물론 산등성이의 부족을 방문했던 일과 선교 병원의 현지 의사인 닥터 비노를 전도했던 일 등이 모두 기쁨으로 각인되었다.

특히 저녁 무렵 영재 학교 기숙사로 자습하고 있는 아이들을 방문했을 때, 일제히 일어나 "굿 이브닝 씨" 하고 인사하며 경쟁적으로 신나게 찬양을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00% 힌두교 국가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룩하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경탄을 금할 길이 없다.

몇 년 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 호산나 재단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당시 집권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의 주역들이 바로 영재 학교의 학부형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힌두교도인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못마땅해 했으나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결사반대할 만큼 이곳 선교사님들의 쾌거는 '전략적 선교'의 모델 그 자체였다.

부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도티 공항은 말이 공항이지 널따란 잔디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 잔디밭 사이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공항 마을 다파얄을 떠났다.

마치 007 영화를 연상하듯 비행기가 시동을 건지 1~2 분도 안되어 도티 골짜기에서의 전격적인 탈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도 그곳의 130 만 영혼을 위해 '제발 의사 선교사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간절한 선교사님의 부탁을 기억하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나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리라'는 결심을 하고 눈물을 삼키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로 간 지역은 카트만두 근교의, 맞은편으로 히말라야의 설산들이 바라다 보이는 골짜기 마을이었다. 그곳 중턱에는 호산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Joy House'라는 고아원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 복지 센터'로 부모가 있어도 양육이 어려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힌두교 문화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철저한 크리스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초등교육은 크리스천 교사를 초빙하여 100%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립학교에 내보낸 큰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톱(Top)을 할 정도로 '최고의 인재를 길러 내는 곳'으로 이름을 굳히고 있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130 명의 어린이들은 이미 적성 검사와 인성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로가 확정되어 장차 네팔을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되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는 아랫동네 공립학교 교실에서 마을 진료를 마친 후, 조이 하우스의 진료에 들어갔다. 어린이들의 진료를 마친 후 간단한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그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시간이었다.

그들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가 보다. 사랑의 봉사단을 위해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던지 그 기도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카트만두 골짜기를 가득 메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그 은혜와 감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천사로 변한 것이다. 가난에 찌들고 부모 없는 설움에 그늘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발하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그들을 어찌 잊을 것인가. 내 어찌 이곳을 그냥 스쳐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고 솔로로 특송까지 불러주었다. 선교사님 한두 분의 사랑으로 어찌 그들의 전인적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으리요.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들의 애절한 눈빛을 어찌 잊겠는가. 오늘도 밤마다 출현하는 빈대로 고통당하는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어찌 풍요의

바다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내게 누구인가. 어찌 내 자식만 자식일 수 있단 말인가!

내 아들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세계는 나의 교실

1월 9일

드디어 출진의 날. 새벽같이 공항으로 나갔다. 환송 나온 가족들을 뒤로하고 우리 사랑의 봉사단 뭉바이·오리싸 팀 31 명의 형제자매들은 홍콩행 비행기기에 올랐다. 연말연시에 인도네시아 집회에 다녀온 지 3일 만에 다시 타는 비행기였다.

홍콩-방콕을 거쳐 뭉바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14 시간만의 일이다. 인도에 오는 것이 이것으로 6 번째다. 뭉바이 공항에 마중 나온 백종태 선교사님과 3 개월 만에 만나는 김은진 간사와의 해후가 너무나 좋다.

신기한 일이나 놀라운 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처음 8 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는 20 개 팀 300 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통계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120 명으로 만족하고 추가 홍보를 포기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느꼈다. 20 개 팀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기도와 성김의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이다.

'7 기가 180 명이었는데 8 기가 어찌 줄어들 수 있는가?'라는 혈기를 버리자. 사역은 사업이 아니다. 이 사역이 하나의 놀라운 소문으로, 신기한 일로 그쳐 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자. '역시 사랑의 봉사단' '역시 황 박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포기하자. 오직 이 사역을 통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며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자. 내 자신이 드러나고 커지는 것은 사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고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된 사역이다.

1월 10일

우중충한 뭉바이만에 까마귀가 난다. 백 선교사님 덕 발코니에서 내려다 본 인도양은 인도의 현실처럼 무겁기만 하다. 첫날 사역은 역시 슬럼가 사역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한 냄새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발걸음은 가뿐해진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의 맨바닥에 진료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수업을 받고 있던 유치원 아이들의 눈망울 50 개가 반딧불처럼 어두움을 밝힌다. 이번에는 의료 팀보다 미용 팀에 시선이 집중된다. 세계 최대의 슬럼가인 이곳 사람들도 질병의 문제보다는 아름다움에 더 관심이 많은가 보다. 미용 팀에 대한 약간의 질투심.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일 수밖에 없고 인격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늘어선 환자들, 슬럼가 사람들에 대한 처방을 사랑의 진료소 담당 간사인 인도 의사에게 배웠다. 모르면 누구에게나 배워야 한다. 오전 진료가 끝나고 화장실을 찾는데 미로를 10 분이나 걸었다. 슬럼가의 내막이 낱알이 드러나는 좁은 길 행진이다.

인도는 오면 울수록 깊이 빠져드는 매력적인 곳이다. 인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도인이 너무도 좋다. 그들의 자긍심과 종교심은 물론이고 그들의 단점과 고통까지도 모두 사랑스러울 뿐이다. 힌두이즘으로

대표되는 이 거대한 종교성, 이슬람 세력이 700 년을 지배하고도 오히려 종교적으로 흡수당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곳. 무엇이든 삼키는 불가사리와 같고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 힌두교의 무서운 영성이다.

만약 이들의 거대한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될 때의 엄청난 폭발력을 상상해 보라. 10 억 인구 자체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날을 기대해 본다. 그 길이 머나먼 길일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뭄바이 한인 교회 집사님들의 배려로 조그만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백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인도 사역의 초점을 '사람을 키우자'는 쪽으로 모았다. 올해 안에 인도에서 크리스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이다. 오늘은 사랑의 진료소가 있는 슬럼가 교회에서 진료를 했다. 사랑의 진료소(Loving Concern Clinic)는 뭄바이 슬럼가의 영적 숨통을 열어 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다.

진료를 하다 고단해 이층 다락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호텔 방의 부담스러움과 슬럼가 교회 2 층 방의 평안함.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잠시 눈을 뜨고 누워 나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말 내가 자리를 깔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는 정말 깊은 평강을 맛보는 곳이다.

진료가 끝나고 인도 형제자매들과 우리 단원들이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형제애... 인종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됨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이야.

인도 최대의 도시이자 인도 경제력의 60%가 몰려있는 곳 뭄바이! 많을 때는 하루에 5 만 명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몰려오는 곳. 뭄바이 외곽은 끝없는 슬럼가의 퍼레이드가 펼쳐져 있다. 나는 슬럼가 집들을 빌라라고 부른다. 형성된 지 오래된 '올드 빌라'가 있고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뉴 빌라'가 있다. 뉴 빌라는 대부분이 천막촌이다. 어느 새 우리 일행을 태운 차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듯한 부대자루로 된 최신 빌라촌을 지나고 있다.

1 월 12 일

설마 했더니 오늘 설교란다. 3 년 전 방문했던 슬럼가 교회. 이번이 재방문이다. 그때는 한국어-영어-힌디어의 3 중 통역이었지만 오늘은 영어로 설교를 했다. 준비 없는 즉석 설교를 해야 하니 정말 목이 탈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총명한 은혜의 찬양과 이토록 가난한 믿음의 풍성함을 대하다 보니 극한 가난 속의 폭발적인 찬양의 역사가 어두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영어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는다.

그러나 더욱 눈을 땔 수 없었던 것은 성도들의 눈빛이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현란한 눈망울은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평생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냥 머물러 버릴까? 작년 이맘 때 네팔의 오지인 도티에 갔을 때 그곳 병원에 그냥 눌러 앉고 싶은 충동을 느낀 이래 두 번째이다.

나는 이 슬럼가 순례를 '성지 순례'라 부른다.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이곳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곳,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가 가장 절실한 곳. 해야 할 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가장 좋은 곳. 그러니 이곳이 바로 '진짜 성지' '살아있는 성지' '현재의 성지'가 아니겠는가. 올바른 성경 이해에 기초한 성지 순례를 하고 싶은 분은 인도로 오라.

저녁에는 다른 슬럼가 지역에 사랑의 진료소 제 2 호가 문을 여는 감격적인 행사를 가졌다. 혼자 테이블을 끄는 영광을 누렸지만 사실 나는 이런 때에는 어색하기 그지없다. 주로 힌두교도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기대의 눈빛으로 우리를 환영한다.

"주님, 이 진료소를 사용하사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본래 기도하던 대로 2,020 개의 사랑의 진료소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월 13 일

어제 밤부터 고민하던 것은 '오리싸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언제 갈 것인가'였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쳐지지도 말자.

뭍바이의 매력은 단연 아라비아 해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힌두 땅에서 이슬람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중후한 매력, 물론 인디안 게이트와 타지마할 호텔, 마린 드라이브 해변의 매력도 일품이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다 흡수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거대한 흡입력, 힌두이즘은 정말 용광로같이 뜨겁고 원자탄같이 무서운 영적 실체이다.

슬럼가에서 초고층 빌딩까지, 삼발이 택시에서 벤츠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힌두의 땅, 벌써 기차는 뭍바이 역을 출발했다. 30 시간의 기차 여행, 이등칸의 애환과 굶주림과 자지 못함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탄판이었다.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너무나 재미있기에 한 개의 오물렛으로 한 끼를 때우고 세 시간의 새우잠으로도 하룻밤을 거뜬히 보낸다.

서해안의 뭍바이에서 동해안의 바이삭까지 가는 인도 횡단 여행은 '와' 하는 탄성과 함께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논, 밭, 수풀 등 산과 들에 펼쳐진 각양각색의 푸르름, 그 스펙트럼을 맛보기도 한다. 전라도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곳도 있고 동아프리카의 마사이 땅 같은 황량함이 배어 있는 곳도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만 보던 바다같이 큰 강도 지나고 이윽고 캔버스에 빨간 물감을 열게 풀어 놓은 듯한 잔잔한 저녁놀이 우리를 맞이한다. 마침내 어두움이 깔리고 사랑도, 감격도, 새로움도, 환희도 모두 잠자리에 든다. 그래도 기차는 끝없이 달린다.

1 월 14 일

아침 해가 구름 지평선에서 떠오르고 마음의 장을 열어젖힌다. 겨울 들녘에 나지막이 깔린 구름 지평선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구름 탓인지 그것도 계수나무와 옥토끼가 그려진 태양이다. 이윽고 팜나무들이 군병처럼 서있는 지대를 통과하는데 처음에 나는 이름 모를 이 나무를 키나루라 불렀다. 꼭 열쇠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모양이다. 가끔 해바라기만큼이나 큰 노란

꽃들이 제주도의 유채밭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길게 널려있다. 나팔꽃같이 생긴 꽃인데 빛깔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코스모스처럼 핑크빛이다.

끝없는 평원에 펼쳐진 각종 곡식과 채소들이 녹색빛 콘테스트를 연상케 한다. 사실 이 나라는 굶을 이유가 없는 나라다. "주님, 이토록 광활한 농토를 가진 이 나라가 베푸는 나라로 축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윽고 작은 산들이 등성등성 보이고 열대에서 아열대로, 아열대에서 온대로 기후를 초월하여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어둠 속에 묻히면서 끝없는 상념에 잠기고 나는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과연 현재의 삶이 최선인가'를 반복해서 되묻게 된다.

같은 열차 칸에서 만난 인도인 의사가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 'Loving Concern Corps'라고 박힌 봉사단원들의 빨간 조끼에 호기심을 갖고 나를 만나러 왔다. 크리스천 의사로 바이삭에서 선교에 전념하는 그가 동역을 요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감을 맛보며 짧은 영어를 한탄할 뿐...

드디어 열차는 30 시간 만에 AP 주의 철강 도시 바이삭에 도착하여 변성영 선교사님, 박시, 샤우 등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마침 오늘이 AP 주의 설날이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섯 대의 택시를 빌려 수십 상자의 의약품, 구호품, 지원품과 단원들을 싣고 오리씨의 제이포르로 출발한다. 밤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비몽사몽간에 꼭 끼어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어렵פות이 기억에 남는 것은 AP 주와 오리씨 주의 주 경계선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것뿐, 정신없이 하루가 갔다.

드디어 오리씨! 뭍바이를 출발한지 42 시간 만에, 한국을 떠난 지 6 일 만에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1 월 15 일

산악지방 오리씨의 고도 제이포르, 이렇게 한국과 비슷한 풍경이 있을까. 나지막한 산과 활엽수림, 거기에 완전한 가을 날씨다. 게다가 시골집들은 대부분 초가집이다. 정말 고향 마을을 보는 기분이다. 시골길의 정취가 완연한 늦가을에 배여 있고 착하다착한 오리씨인들의 표정이 무공해 자연과 이미지가 겹쳐진다. 첫 번째 사역지인 쿤드라구다 마을에서는 진료와 이·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과 도랑파기(토목) 사역이 동시에 펼쳐지며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오리씨는 인도의 땅 끝이다. 5 천만의 인구에 딱 한 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 아리안 족에 쫓긴 인도의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 인도에서 아프리카와 가장 유사한 곳. 인도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한 곳. 힌두교의 이단인 한 종파에 의해 인신 제사가 드러지는 곳. 드라큐라(무당의 일종)가 출현하여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는 마을. 5 천만 오리씨 주민들을 붙들어 매고 무지에 의해 왜곡된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곳. 여기야말로 복음이 꼭 필요한 곳이다.

언젠가 인도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최고의 죄는 무지'라고 역설하던 것이 생각난다. 환자를 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볼록 나온 아이들이었다. 최근 연구에 위하면 이 질병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포용이 부족해도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비타민 A 의 부족으로 시력을 잃어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맹인이 되어 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에게 단백질도 중요하고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 어린 관심(Loving Concern)'이다. 이 지역에 많은 질병은 영양실조, 기생충 질환, 피부병, 아메바성 이질, 감기, 말라리아, 골관절염, 위염·위궤양, 중이염, 축농증 등 약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1 차 질병이다.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환경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지독한 고통을 받는 이들.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 고열로 아이들이 죽는 일이 허다한 곳도 이곳이다.

진료를 마칠 무렵 몰려오는 원주민들로 진료는 자꾸 늦어진다. 결국 밤늦게까지 라이트를 비치며 마지막 희망자까지 진료를 마치고 나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 팀들이 모두 동그랗게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라는 가사의 주제를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약을 챙기고 떠나오려는데 남아있던 성도들이 모여 특송과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질병에 둘러있는 가난한 성도들, 그러나 피부로 와닿는 주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우리는 한 형제'라고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을 느낀다. 어둠 속 저 멀리에서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찬양으로 오리싸 하늘을 메아리치며 우리를 배웅하는 그들의 사랑의 메시지. 이 아름다운 이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아름다운 마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들이 왜 우리에게 '타인'이어야 하는가.

1 월 16 일

오늘은 새벽부터 서둘렀지만 결국 출발 시간은 9 시가 되고 만다. 다른 팀은 다 출발하고 선교사님과 나는 두 번째 사역지인 깔리아구다 마을로 향한다. 오늘은 마을에 도랑 파주기와 의료 봉사자 주축을 이룬다. 가다가 잠시 선교사님이 보아둔 땅이 있다고 보고 가자고 하신다. 주변에 조그마한 시내와 나지막한 야산,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땅이다. 여러모로 생각해보니 땅값도 저렴하고 선교 센터를 하기에는 최적지인 것 같다.

미래에 펼쳐질 주님의 사역들. 현재 진행 중인 신학교 사역과 더불어 사랑의 진료소, 고아원, 유치원과 학교, 농장과 목장, 목회자 훈련원, 기술 훈련원 등이 뇌리를 스쳐간다. 아아!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이 기적을 일구어 내는 무수한 땅들을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찰마리, 마사이의 무쿠타니, 네팔의 조이 하우스, 도티, 다델두라, 필리핀의 일로일로, 세부, 태국의 촌부리가 그랬다. 이제 인도의 가장 척박한 땅 오리싸에서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하루 종일 흥분을 가누지 못한다. 선교 센터보다 앞서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변 선교사님과 박시 변호사, 샤우, 성경 대학 출신의 무수한 사역자들. 사람이 있고 나서야 사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가 응답 받을 줄로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짧고 의미 있는 기도가 오늘 응답을 받을 줄이야! 오후에 신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잠시 대화하던 중에 같이 동행했던 이 집사님이 100%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계약금은 팀원들이, 잔금은 집사님이 전액 부담하기로 해서 10 에이커의 대한 선교 센터가 믿음으로 탄생한 것이다.

Orissa Evangelical Bible College! 인도풍의 고상한 축제 분위기 속에 4 년제 신학교인 이 대학의 첫 번째 졸업식이 열리던 오후, 우리는 마음껏 축하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4 년제

12 명, 2 년제 8 명의 졸업식인데 2 년제 졸업생들은 다시 2 년을 더하겠다고 집단으로 졸업을 거부한 상태에서 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사에서 그들에게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치는 선교사님. 그 눈빛과 표정에서 오리씨의 복음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한 위대한 여인의 아름다운 열망을 읽을 수가 있었다.

졸업식 도중에 정체불명의 괴청년이 나타나 사진을 찍고 소란을 피웠다. 변 선교사님을 추방시키려는 자들의 끄나풀인 이 청년과의 실갱이 및 추격전으로 졸업식은 엉망이 되었지만 졸업식이 끝날 즈음 나는 졸업생들에게 다가가 축복송을 불렀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것은 솔로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은혜 속에 졸업식이 마감되고 사진 찍기 경쟁이 시작되었다. 예정에 없던 것이었지만 우리 팀들은 졸업생 전원과 교수 전원을 초청하여 저녁 만찬을 가졌다. '다시는 대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Hospitality 의 정의가 아닐까. 섬김에는 항상 투자와 정성이 필요한 것 같다. 모두들 교회 개척에 나설 주님의 군병들이다.

파티가 끝날 무렵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각오한 이들에게 나는 한마디 했다.

1 월 17 일

아침 큐티의 은혜가 넘쳐서 시작부터 싱싱한 하루다. 아프리카 원주민과 흡사한 본다 족을 찾아가는 길. 세 시간 동안 산악 지방을 달려 더 이상 차량통행이 안 되는 지점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12Km 의 산행길. 본다힐로 가는 길은 난관이 많았다.

우선 그곳은 보호지역으로 경찰의 경계망을 뚫고 가야하는 곳이며, 몇 개의 봉우리를 넘는 등산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의 표정은 마냥 밝고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몇 년 만의 산행인가. 인도 오리씨에게까지 와서 등산이라니. 찬송이 절로 나오며 시간들이다. 산행의 교훈들을 생각해본다.

가장 실감나는 원칙은 '오를 때는 천천히, 험할수록 천천히'이다. 최단시간에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를 때 서두르는 사람은 빨리 지치게 마련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다.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사고 날 확률이 높다. 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법인 것처럼... 나에게도 내리막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후계자)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넘겨야 할 때,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이다. 정상에 있을 때보다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그 인격이 돋보이는 법이다.

또한 등산은 하나님의 비결이다. 역경과 고난을 같이 겪어보아야 일체감이 생기고 동지의식으로 뭉쳐진다. 오리씨 팀을 하나로 묶어준 계기가 된 것도 이 등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의 빨치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험한 코스나 위험한 길일수록 밝을 때 해야 한다. 특히 모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전문가라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나는 험한 산에서 부득이하게 밤 등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가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밤 등산은 절대금물이다. 빛이 없는데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의 빛 아래 모든 것을 조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다힐까지 오는 동안 차에서 본 풍경, 즉 댐과 호수와 폭포가 있는 풍치는 강원도 춘천 가는 길 그대로이다. 그리고 본다힐 입구의 낮익은 시냇가 풍경이며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은 고향 마을을 연상케 한다. 갈대밭과 강아지풀들은 꼭 가을철 제주도의 들판을 연상케 하고 중간에 풀들이 널려 있는 풍경은 지리산의 세석평전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정처 없이 가는 길이 너무도 좋다. 어차피 인생은 미지의 길이고 미완성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이토록 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몇 사람은 기권했었을 것이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축복일 수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는 길에 본다힐의 정상에서 드렸던 기도회로서 힌두이즘의 소멸과 인도 복음화, 선교사님들을 위한 불을 뿜는 뜨거운 중보 기도였다.

인도의 땅끝 오리싸, 오리싸의 땅끝 본다힐.... 아직도 식인풍습이 남아있는 이들. 이들을 향한 약간의 떨림과 설렘 속에서 산행이 계속된다.

드디어 본다족을 만나는 순간이다. 약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본다족을 만난 우리 팀들은 처음에 적대적이던 그들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약간의 약을 나눠주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발라주는 것이 접촉점이 된다. 가끔 겁을 주기 위해 화살을 공중으로 쏘 올리는 약간의 위협이 있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도 찍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도 나누었다.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는 말에 조기에 철수하기로 했다. 거의 중턱까지 화살을 들고 뒤쫓아오는 그들 때문에 거의 뛰다시피 산을 넘으며 그곳을 빠져 나왔다. 산행이 거의 끝날 무렵, 석양의 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같은 경치도 시간의 흐름과 빛의 강도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1월 18일

아침 일찍 제이포르의 정부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게 웬 수용소인가? 감옥을 연상할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다. 병원은 치료의 이미지와 안식의 이미지가 중복되는 곳이다. 평화와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저민 가슴에 슬픈 한숨을 내쉬어 본다.

그 동안 진료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비타민 A의 부족에 의한 어린이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그곳 의사들과 논의하며 Blind Free India를 구상해 본다. 선교사님과는 실명 예방 클리닉의 개설과 실명 예방 운동에 대해 거의 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 하루의 산행길이 시작된다. 2개의 산을 넘는데 여기는 꼭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같은 곳이다. 산족 사역을 마치고 다시 산을 넘어오는데, 이별의 순간 한 원주민 여인의 손에 쥐어진 진홍색 꽃잎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뉘엿뉘엿 해는 지고 산자락에 부는 미풍은 석양의 빛깔과 함께 세계를 바꾸어 놓는다.

환자가 적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랫마을에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야간 진료가 시작된다. 할 일이 없는 곳은 빨리 떠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듯 하다. 오리싸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

1월 19일

기술 부족으로 불발로 끝난 어젯밤 바비큐 파티와 현지 신학생들의 섬김이 가슴에 남는다. 밤늦은 스케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새벽 3시 바이삭행 택시를 준비한 박시 변호사가 들이닥쳤다. 그 시각에 일어나 나를 전송한 팀원들의 사랑에 감격해 하며 차는 밤새 오리싸를 달린다. 산악지방 오리싸를 지나 아침녘 AP 주의 평야 지대로 내려오니 꼭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팜나무 사이에 걸친 일출의 광대함에 말문이 딱 막힌다.

위대한 인도, 인도인, 인도땅! I Love India! 인도가 열리고 있다. 위대한 인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성경 진리와 은혜의 복음이 인도 땅을 뒤덮을 날을 기대해 본다. 엄청난 인도의 잠재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된다면 세계가 변할 수밖에 없으리라.

왜 인도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는가. 왜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인도를 허락하시고 모든 서양 선교사를 추방했는가. 서양 선교사가 수만 명 가 있는 아프리카의 인구는 불과 4억에 불과하지만 현재 서양 선교사가 전무한 인도의 인구는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땅을 우리 한민족에게 남겨두신 섭리는 오직 한 가지! 인도는 우리가 섬겨야 할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땅.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디안 복음화의 비전을 맡아 감당할 민족은 우리 외엔 없는 것 같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영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소서. 눈물짓는 박시를 바이삭 공항에 남기고 뭍바이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1월 20일

뭍바이에서 조용한 아침을 맞다. 한인교회 성도님 가정의 따뜻한 환대에 안식을 누리다. 스리랑카 일정과 구자라트 일정이 비행기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게다가 감기까지 겹쳐 휴식을 취하며 몇 달 만에 누리보는 자유 시간의 환희. 젊음에 대한 열망이 다시 샘솟는다. 글 쓰는 기쁨, 조 집사님의 저녁 대접을 받고 타지마할 호텔에서 바라보는 마린 드라이브의 조명이 복음화 된 인도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듯 뭍바이만을 불태운다.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국 호텔에서 쫓겨난 타타 회장에 의해 설립된 타지마할 호텔! 그의 분노가 타타 그룹이라는 인도 최고의 재벌이 되고 세계 최상급의 호텔을 인도 전역에 세우는 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인도 땅은 온통 사랑의 기회, 섬김의 필요로 꽂 차 있다. 그 사실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철저히 망가지고 병들고 왜곡된 이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극명한 차이와 모순 앞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의 봉사단을 세계화하자! 사랑의 혁명 운동의 횃불을 들자! 인도 사랑의 봉사단을 개척하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아프리카에도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자! 각 나라의 젊은이들과 동역

사역을 시작하자. 그들에게 사랑의 기쁨, 섬김의 도전, 자기 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심어주자.

1월 21일

이틀째 몸이 아프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고전하다. 오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질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았다. '딱 한 번만'의 유혹. 그러나 그 한번은 우리 영혼을 노예로 삼는 뱀의 역할을 한다. '딱 한 번만.' 모든 죄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된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 죄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평가절하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유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영역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바치게 된다. 즉 내 인격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게 만든다. 반대로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아파서 맥을 못 추는 하루. 영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동시에 느껴지는 하루다.

1월 22일

아침에 오리싸 팀과 반가운 해후를 하며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잠깐 동안의 작은 이별에 이토록 큰 기쁨과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전에는 금년 5월에 열릴 사랑의 미술전 박영 화백의 몸바이전 준비를 위해 잠시 갤러리를 탐방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김문자 집사님의 두 번째 식사 대접을 받았다. 32 명을 대접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뷔페를 준비하신 그 정성에 감사할 뿐이다.

저녁에는 조 집사님의 중국 음식 대접에 이어 타지마할 호텔 커피숍에서 갖는 모처럼의 대화 시간.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니 다들 밤을 새우기로 작정한 듯하다. 그동안 나를 잘 섬겨준 여러 형제자매들과 인디안 게이트를 산책했다. 그들과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아라비아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밤새 즐겼다. 인도 날씨치고는 정말 차가운 밤이다. 아아! 인도의 봄은 과연 올 것인가.

1월 23일

새벽 몸바이 공항에서 뜻하지 않은 에티오피아 팀과의 해후!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지... 생각지 않던 보너스 은혜를 주신 주님. 모두들 여윌고 검게 탄 얼굴. 모두들 벼룩에 뜯겨 팔다리의 창상이 돋보이는 에티오피아 팀의 형제자매들. 나는 이들이 에티오피아를 지원할 때부터 그 기백을 높이 사고 싶었다.

방콕 국제공항에서 김현숙 선교사님과의 반가운 해후. 방콕 근교의 한 백화점에 점심 식사를 하러 들렀다가 느끼는 문화 충격. 태국은 소비문화에서는 한국을 앞서가는 듯하다. 세계 일류 메이커는 모두 다 진출해 있는 듯...

문제는 젊은이들의 교만이다. 좋게 표현하면 자신감이지만 일류만을 찾는 너무도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 한마디로 세계 공통의 획일화 대중문화, 대중 소비 시대가 도래 한 듯하다.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복음의 표적은 과연 정확한가. 급변하는 세계 문화의 변혁의 틀에 맞춰 정조준을 한

파트리어트 미사일처럼 복음의 다이내믹한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 많은 꿈쟁이를 더욱 상념에 잠기게 하는 백화점에서의 한 나절이었다.

저녁 무렵, 이미 6 개 팀이 도착해 있는 촌부리 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몼바이, 오리싸, 에티오피아 팀. 촌부리 센터에는 5 년째 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작업복차림으로 진흙 밭에서 일하던 형제자매들을 부둥켜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기쁨의 찬양을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면서 하나가 된다. 다들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저녁 시간에 찬양 공연을 하는 촌부리의 천사들. 고아원 아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이다. 역시 최고의 투자는 사람이다. 무력무력 자라서 이제는 영적 거인이 되어 가는 촌부리 아이들. 김정웅, 이순교 선교사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다 태국의 촌부리 센터에 모여 평가회를 겸한 수양회를 갖는 건 1 기, 2 기, 3 기, 4 기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밤늦게 다시 모여 소개 및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형제자매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고 비전으로 활기가 넘친다. 한 하나님이 이토록 다양하고 독특하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팀마다 넘치는 간증의 파노라마는 끝이 없고 다음엔 꼭 자기가 갔던 에티오피아로, 오리싸로, 네팔로, 소말리아로, 방글라데시로 오라고 열정 어린 손짓을 한다.

사랑과 섬김, 복음과 은혜의 전달자로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120 명의 입에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며 밤하늘을 수놓는다.

'지구촌 어두운 구석구석에 이토록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의 생뿔은 은혜와 젊음의 열기로 촌부리의 여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1 월 24 일

촌부리에서 항상 해오던 사랑의 봉사단의 전통의식인 해돋이 등반. 새벽녘 아직 어둠이 짙은 티크 나무 셋길로 형제·자매들의 행렬이 끝이 없다. 오늘은 무성히 자란 나뭇잎에 가려 일출 광경이 다소 실망스럽다. 앞만 무성한 나무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사랑합니다' '내 탓입니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나눔들. 기도회에 이어지는 아침 큐티.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팀마다 성경 암송의 열기가 뜨겁다.

사역 기간 중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어서 은혜의 치유가 필요함을 절감한다. '망쳤다'는 느낌이 은혜로, 감격으로 바뀌는 비결은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모든 사역 뒤에는 항상 처리해야 할 감정의 앙금이 있을 수 있다.

오전 중에 성경 강해. 바울의 유연장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외치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후 휴식 시간에는 모두들 잠에 취한 듯하다.

팀별 장기자랑을 준비하며 현지에서의 은혜를 재구성하는 단원들. 이번 8 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이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그들에게 바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 '이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녁 무렵에는 이곳 마약재활원 형제들과 한.태 축구 정기전을 가졌다. 해마다 실력이 부쩍부쩍 느는 태국의 형제들. 티크 나무숲에서의 산책도 좋고 야외 공연장에서의 기념 촬영도 흥겹기만 하다. 드디어 해는 지고 색채의 찬가가 시작되는데 저녁노을에 물든 빨갛고 파랑 하늘이 얼룩말의 등살처럼 조화를 이루어 말문을 막는다. 거기에 수려한 얼굴을 내비치는 촌부리의 형형색색의 꽃들, 그것들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저녁노을과 환상적인 공비를 이룬다.

저녁 특식을 준비하고 팀별 특송으로 성경 암송을 대신하며 산책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오란다. 들어가자마자 모든 불이 꺼지고 생일 축하 노래와 찬송을 부른다(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만 40 세가 되는 날, 생일을 축하하는 환상적인 생일 축하 잔치가 베풀어진다. 물론 이번 기간에 생일을 맞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 40 세의 감격에다 100 여 명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고 나니 맹렬한 생의 환희를 느낀다.

저녁 식사 후 찬양과 기도, 교제로 뜨거운 하나됨을 느낀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은혜의 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를 부르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이윽고 시작된 팀별 장기자랑. 폭소와 경탄이 번갈아가면서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선보인다.

나는 해마다 이 잔치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즉흥적 창의력과 아이디어에 갈채를 보낸다. 심사의 중점 항목은 창의력, 흥미, 준비, 단합, 진행의 5 가지. 결국 뽀바이 팀이 1 등, 미얀마 팀이 3 등을 차지하며 그들의 환호성이 촌부리를 들썩거리게 한다. 팀별 사역 보고와 특별 간증의 풍요로운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캠프파이어가 시작된다.

사랑의 불꽃은 하늘을 찌를 듯 저 높이 타오르고 드디어 촌부리를 떠날 시간은 가까워진다. 협동 간사로 추천을 받은 형제자매들과 잠시 비전을 나누는데 불꽃은 이내 사그라진다. '주여. 이 밤을 조금만 더 연장하십시오. 이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 더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밤 촌부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나라의 특종감이다.

1 월 25 일

촌부리를 떠났다. 결국 이별의 날은 다가왔다. 방콕 국제공항에서 다른 팀을 다 귀국시키고 피곤에 못 이겨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바닥에 모포를 깔아주고 베개를 만들어주는 형제자매들의 보살핌에 깊은 사랑을 느낀다.

결국 이번에도 형제자매들에게, 선교사님에게, 현지인들에게 섬김과 사랑만 받다가 오고 말았다. 비행기의 연결편 지연으로 가슴 졸인 마지막 여정도 은혜로 막을 내리고 드디어 김포 공항.

마중 나온 가족들에 둘러싸여 팀원들과 손을 맞잡고 주제가를 부른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헤어짐의 눈물과 뜨거운 포옹으로 18 일간의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대장정은 끝났다. 다른 때처럼 '혹시 에프터 모임에서 못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말도 못 꺼내고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